

첨단제조업 무역수지 5년새 15% ↓

현대경제연 '국제 경쟁력 비교 보고서' 발표... 같은 기간 대만과 중국은 각각 26%·6% 증가

우리나라의 첨단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만,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고부가 제조업의 주역인 수출 경쟁력 국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제조업 평균 무역수지는 지난 10년(2000~2009년)간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2010~2014년) 급격히 악화됐다.

평균 무역수지를 5년 단위 설정했을 때 2000~2004년 281억 달러, 2005~2009년 509억 달러, 2010~2014년 5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상황이 나빠졌다.

2010년 1345억 달러였던 무역수지는 2014년 534억 달러로 15%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과 중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됐다.

2010년 1345억 달러였던 대만의 무역수지는 2014년 1700억 달러로 무려 26%나 증가했고, 중국의 무역수지도 1218억 달러에서 1283억 달러로 6% 늘었다.

무역수지 실적만 놓고 보면 한국은 대만과 중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의 무역수지도 모두 개선세를 나타냈다. 비교 대상국 중에서는 일본만이 2010년 349억 달러에서 2014년 -85억 달러로 적자전환했다.

한국의 첨단제조업 수출 경쟁력 전망도 암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업종의 순수출액을 그 나라의



취업 희망자들로 북적북적 21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16개 신세계 그룹사와 90개 중소 파트너사들이 참여했으며 신세계가 박람회 개최 비용 등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고 파트너사들은 신세계와 함께 우수 인재를 발굴한다.

총교역액으로 나눠 산출한 무역특화지수(TSI)를 기준으로 보면 2005~2009년 한국의 평균 TSI는 0.075였다가 2010~2014년 0.054로 떨어졌다.

무역특화지수가 0보다 크면 경쟁국보다 우위, 0보다 작으면 비교 열위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경쟁력 수준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약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개별 업종별로는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의 경쟁력은 악화됐고 과학

측정기기, 제약, 항공 등의 경쟁력은 강화됐다.

이장권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첨단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은 대만·중국·한국·일본 순으로 나타난다"며 "이 중 최근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첨단제조업은 부가가치 창출력과 수출 경쟁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 그리고 장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재할성화하는 맞춤형의 차별적 지원책을 세워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제4차 제조 혁명 시대의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수석연구위원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CT)서비스 부문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며 "국가가 주도해 기초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단형 연구개발(R&D)'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진수 기자

불법금융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금감원, 파파라치 신고제 올해 말까지 운영

유사수신, 보이스포싱 등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포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등급에 따라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인터넷 포털 '시민금융1332'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 및 모사전송(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행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관련자의 감시 및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하되 포상금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중저가요금제에 지원금 더 준다

미래부, 단통법 기준 개정 추진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중저가요금제에 현재보다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위임 행정규칙(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기준'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부는 고시를 개정해 중저가요금제 지원금이 고가요금제 보다 높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율이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고시는 모든

요금제의 지원율이 다 똑같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소지가 있어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중저가요금제 지원율을 고가요금제보다 높여도 된다. 단 반대의 경우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중저가요금제 지원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지만 단통법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문제삼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명확화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고시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를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례성은 지원율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인진수 기자

은행 영업점 자점검사 직원 배치 의무화 폐지

이르면 다음달 30일부터... 금융위 '현장점검' 건의사항 1402건 수용

이르면 다음달 30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적용되는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그 중 일부를 수용·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은행 영업점에는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자점검사 담당직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자점검사가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용해야 하는 규제인데다, 담당직원의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은행 직원들은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당 1인이 아닌 본부에 배치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감독규정을 수정해 다음달 30일 자점검사 담당직원 영업

점 배치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김성조 금융위 현장점검팀장은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은 직접 자체 검사체계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된다"며 "필요시 자점검사 담당직원은 본부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가 폐지되면 대형·중소형 등 지점 유형에 따라 자점검사체계 차등화,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단기간 소액 수당 지급을 허용하고 경영위의 개선사항에 대한 공식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2일 출범한 현장점검반은 지난 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금융회사가 요청한 3881건의 관행·제도개선 요구 중 1402건의 수용(수용률 41%)했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17일 사이 수용한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letter.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진수 기자

NHN엔터, '페이코' 간편 송금 서비스개시

NHN엔터테인먼트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PAYCO)'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페이코 간편송금은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 같이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가 없고 본인 인증 절차를 ARS 인증만으로 간편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송금은 페이코 앱에서 계좌번호 송금과 휴대폰번호 송금 방식으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계좌번호 송금의 경우 페이코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계좌로 바로 송금 즉시 인출해 사용할 수 있

다. 휴대폰 송금은 회원가입을 해야 송금을 받을 수 있다.

페이코 송금은 국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씨티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 NH투자증권, 외환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15곳이 참여 중이다.

SC제일은행 계좌를 페이코에 연결하면 은행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23일~7월15일 SC제일은행 계좌 등록 후 첫 송금한 고객 전원에게는 페이코 1000P가 지급된다. /인진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